

창의 · 인성교육의 현장 실천에 대한 질적 분석

임성민* · 오정숙† · 박소영* · 원효현 · 박종운 · 강버들
(*대구대학교 · 부경대학교)

A Qualitative Analysis on Implementation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s

Sung-Min IM* · Jung-Sook OH† · So-Young PARK* · Hyo-Heon Won · Jong-Un PARK · Beodeul KANG
(*Daegu University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qualitatively implementation in schools through perception on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of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winter training and workshop which the Southeast Regional Center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arrang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eachers responded that they used most often a variety of students' experiential and participant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 subject in practising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Secondary, they showed a wide variety of responses from 'not to able to measure' to 'to practice in every class' for how often to apply to and practise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in class. Thirdly, for the question of 'How do you think environment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in your school', while parts of them responded 'sufficient educational environment', some of them did 'poor or not completely supported environment'. Lastly, most of them utilized teaching materials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periodically or in reconstructing according to instructional form in their class.

key words : Creativity-character education, Implementation, Qualitative analysis

I. 서론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융합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수렴적 사고에서 발산적 사고로, 결과중심 문제해결에서 과정중심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의 교육은 정해진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기존의 지식과 개념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과 개념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성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창의성을 보다 완벽하게 완성시켜 주는 요소가

인성이다. 새로운 지식과 개념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정신과 정의로운 목적의 추구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첨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미래의 인간상은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이며, 이는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미래 사회는 다양한 학문과 기술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래 교육은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고 키워주는' 교육의

† Corresponding author : 053-850-6591, jsoh@daegu.ac.kr

* 본 논문은 동남권 창의인성교육 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서(2014)의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임.

핵심에 ‘창의성’과 ‘인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된 창의·인성교육은 1990년대 이후 교육과정 개정 시 화두로 대두되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를 구성 방침으로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0).

창의·인성교육은 창의성의 개발과 인성의 함양이 동시에 이루어진 균형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미래를 대비하는 인간상으로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발표(2009. 12.)하고, 2009 개정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지나친 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 활동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폭넓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체험중심의 교육으로 학생들을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기능을 골고루 갖춘 미래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한편, 창의·인성교육의 현장 실천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을 창의·인성교육정착의 해로 설정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and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2013).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결합을 시도하는 연구들은 비교적 최근에 시도되고 있다(Park, 2010). 창의·인성교육이란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창의성의 배양과 발휘를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풍토를 조성하고,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철학 및 교육전략을 의미한다(Moon, 2010).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내용 및 방법개선, 교원·학생·학부모의 역량 강화, 교육평가 시스템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교원들의 창의·인성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사연수 확대를 통한 창의·인성교육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교사들을 강사 요원으로 활용하여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개선, 학교 밖 체험활동의 활성화, 교원·학생·학부모의 역량 강화, 교육평가 시스템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교원들의 창의·인성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사연수 확대를 통한 창의·인성교육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교사들을 강사 요원으로 활용하여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Park, 2011).

미래 인재양성의 국가적 역량은 교과별·학년별 창의·인성 학습요소 분석, 수업모델 개발, 수업지도안 작성, 지도방법 개발에 중점을 둔 ‘창의·인성 교과별 연구회’ 운영, 창의체험 지도 개발 및 교원연수와 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문제점 추출 및 보완에 초점을 둔 ‘창의·인성교육 시범교육청’ 운영, 창의·인성교육의 실천 노하우를 다른 학교가 벤치마킹할 목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 그리고 ‘자율형 창의경영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Kang, 2014).

창의·인성교육 동남권 거점센터는 동남권 지역 교원들의 창의·인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과수업에서 창의·인성교육 실천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창의·인성교육 동남권 거점센터는 학교 현장의 창의·인성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창의·인성교육의 확산을 목적으로 약 10개월 간(2013. 06.- 2014. 04.) 운영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창의·인성교육 동남권 거점센터의 여러 가지 운영 사업 중 교원 연수와 워크숍 영역에 제한하여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창의·인성교육 동남권 거점센터의 교원연수와 워크숍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식을

통해 창의·인성교육의 현장 실천 현황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은 어떤 실천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둘째, 창의·인성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은 어떠한가?

넷째, 창의·인성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준비하는 자료는 무엇인가?

다섯째,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생평가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창의·인성교육의 실천에 대한 초·중등 교사들의 인식을 질적 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질적 분석은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직접 실천하고 선도하는 교사 집단 중, 창의·인성 수업연구회 및 창의·인성교육 동남권 거점센터에서 주관한 동계 교사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 of the respondents

division		respondents
interview (*)	elementary lesson research association	5
	secondary lesson research association	5
survey	workshop participants	27
	teacher training participants	28
total		65

대상자는 <Table 1>과 같이, 수업연구회 교사 37명, 동계연수 참여 교사 28명으로, 전체 응답자는 총 65명이었다. 이들 중 10여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55명을 대상으로 기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 의한 결과는 표 속에 *로 표시하였다.

2. 조사 도구

창의·인성교육의 현장실천에 대한 초·중등 교사들의 인식을 질적 연구하기 위하여 분석틀을 <Table 2>와 같이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창의·인성교육 현장 실천을 질적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은 동남권 창의·인성교육 거점센터 교육정책개발실에서 과학창의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 자율진단표를 참조하여 제작하였으며, 교원 연수와 워크숍 후에 실시하였다.

<Table 2> Analysis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region	category
implementation	method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frequency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environment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data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evaluation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3. 자료 분석

창의·인성교육의 현장 실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 제작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질적 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창의·인성교육의 실천 방법

창의·인성교육의 실천 방법에 대한 응답 교사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22(*)는

22명 중 심층면접에 의한 빈도수가 2명이라는 의미이다.

<Table 3> Implementation method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N=56)

contents category	relative frequency
experience activity through subject	22(*2)
communication education between teacher and student	9
all education activity of lesson, guiding of life and consultation, etc	9
curriculum reconstruction	6(*1)
selection for proper unit	4
insufficiency	3
application of sailing teaching material	1
school event	1
career activity connection	1

(*2) : number of interview is two

창의·인성교육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은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 및 학생 참여활동을 통해 실시하는 것(22명)이었다. 그 뒤를 이어 교사와 학생의 소통이 강화된 교육(9명), 수업·생활지도·상담 등 모든 교육활동에 포함이라는 응답(9명)이 동일하게 높았다. 그 밖의 의견으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적용한다는 의견(6명), 창의·인성교육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단원에 적용한다는 의견(4명), 시판되는 교재를 활용하여 실시한다는 의견(1명), 그리고 학교 행사나 진로 활동과 연계하여 특별한 때에 실시한다는 의견(1명)이 제시되었다. 또한 소수이지만, 실제 창의·인성교육의 실시가 미흡하다는 의견(3명)도 제시되었다.

이상의 의견을 분석해보면, 응답 교사들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교사와 학생의 소통과 상호이해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적용이 가능한 단원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으나, 교과 이외에도 학생들의 생활지도, 상담 등 모든 교육활동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창의·인성교육의 실태

창의·인성교육의 실태에 대한 응답 교사들의 의견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frequency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N=53)

contents category		relative frequency
frequency	every hour	21
	1 ~ 3 times a week	7
	1 ~ 3 times a month	3
	3 ~ 4 times per semester	1
	1 ~ 2 times per semester	5
	about 1 per year	2

* no comment for frequency : often trying attitude(9), insufficiency(3), unmeasured(4)

창의·인성교육을 얼마나 자주 학교 수업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가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없다(4명)는 응답으로부터 매 시간마다 실천한다는 응답(21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들의 응답을 질적으로 분석해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창의·인성교육이 교사에 따라 현장 실천도가 다르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창의·인성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사한 수업 활동에 대해서도 어떤 교사는 창의·인성 요소만 포함되어도 창의·인성 수업을 실천한다고 간주하는 반면, 어떤 교사는 창의·인성교육을 명시적으로 의도한 프로젝트식 수업만을 창의·인성 수업이라고 간주하여

응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의·인성교육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문도 필요하다.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창의·인성교육의 현장 실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일부 교사들은 창의·인성교육의 현장 실천의 확인을 위해 횡수로 정량화하여 나타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며, 현장에서 얼마나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창의·인성교육은 정량화하여 평가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양적 결과보다는 내적 충실함이 더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에 참여한 다수의 교사들이 거의 매 시간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이때의 창의·인성교육의 의미는 매번 의도된 프로젝트형 수업을 의미하기 보다는 창의·인성 요소를 매 시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지만, 이것은 창의·인성교육을 교사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교사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창의·인성교육의 교육 환경

창의·인성교육의 교육 환경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은 <Table 5>와 같다.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교육환경 여건 및 지원에 대해서 교사들 중 일부는 충분한 교육 환경이라(9명)고 반응한 반면, 일부는 환경이 열악(58명)하거나 전혀 환경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2명)고 응답하는 등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났다.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충분한 교육 환경이라고 응답하는 경우는 시범학교 등의 이유로 실제로 다른 학교에 비해 환경 지원이 잘 되어 있는 경우

도 있지만, 물리적 환경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반응 빈도를 보면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이 충분하다(9명)는 반응보다는 부족하다(60명)는 반응이 훨씬 많은데, 어떤 교사들은 교육과정이나 학업성취도 시험과 같은 제도적인 환경을 언급하였고, 일부 교사들은 교재나 시설과 같은 물리적인 지원 환경을, 또 다른 교사들은 교사의 개인 역량과 태도를 언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어떤 종류의 교육환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에 따라서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현재의 교육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다.

<Table 5> Teachers' perception on educational environment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N=69)

contents category		relative frequency	
positive	good	8	
	good classroom & teaching material support	1	
neutral	lesson data	lack of lesson model, teaching material support 9(*1)	
	system	difficult assessment system	3(*1)
		curriculum	8(*1)
	teacher	individual effort of teacher	10(*3)
		lack of recognition for lesson	3
	administration & finance	lack of administration & finance supporting	5
		lack of administration & finance supporting for teacher	7(*1)
	center	lack of center	6
		overplus person, lack of area	2
	the others	lack	4
need of social mind		1(*1)	
negative	don't environment support	2	

한편, 창의·인성교육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평가와 같은 제도적인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최근의 학업성취도 시험과 같이 성취 위주의 평가제도와 사회 분위기를 창의·인성교육의 환경측면에서의 제한요소로 보는 관점이 많았다.

그리고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외적인 환경보다 교사의 개인 역량에 대한 강조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외적인 환경에 대한 응답 또한 교사를 위한 행정 지원이나 교사 간 협업체제 등 직접적인 환경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다수의 교사들은 창의·인성교육의 현장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 환경을 교사 변인과 관련되어 찾으려 하고 있다고 분석되었으며, 창의·인성교육의 성공적인 정착 역시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4.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자료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자료의 활용 정도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Teachers' perception on the use of materials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N=50)

contents category	relative frequency
aplenty	7
once per week	2
once per month	4
required time	6
some	5
for goal	9
don't use	12
suggest reason	5

대다수의 교사들은 창의·인성 자료를 수업에 활용(33명)하고 있었다. 교사 자신의 수업에서 주기적으로 창의·인성 자료를 활용(13명)하거나, 수업의 형태에 따라 활용(20명)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사들은 창의·인성 자료

를 수업에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수업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료는 대부분 창의재단의 '크레존'과 '누리집'이라는 곳에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들이 창의·인성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창의·인성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있었으며, 그들 중 자료가 어디에 탑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창의·인성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임에도 자료의 획득 절차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창의·인성에 관심이 적은 교사의 경우 창의·인성 수업을 할 때 자료의 활용과 수집에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수업의 질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된다.

또한, 창의·인성에 대한 교사의 생각이 창의·인성 자료의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와 교육과정 내에 창의·인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교사가 생각하는 창의·인성의 정의와 제공하고 있는 창의·인성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창의·인성 수업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활용 가능한 수준 높은 자료들을 교사들에게 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교사들이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장소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가에서는 전문적인 창의·인성 수업관련 교사연수와 현장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창의·인성교육의 현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5.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생 평가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생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은 <Table 7>과 같다.

창의·인성교육의 학생 평가에 대해서 교사들의 일부는 평가를 하고 있다(37명)는 반응과 하지 못한다(4명)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창의·인

성교육에서 학생 평가를 한다고 응답하는 경우, 수행평가(13명), 태도 및 과제물 평가(3명), 관찰 평가와 같은 방법(9명)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 외 토의 및 토론, 문답식, 사고 구설법, 역할극, 저널쓰기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12명)을 활용하여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하고 있는 평가가 창의·인성의 고유한 목표를 실현하기 힘들다는 것(2명), 평가 기준 마련의 어려움(2명),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의 곤란성(1명) 등을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평가의 한계와 평가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9명)으로 분석된다.

<Table 7> Teachers' perception on the use of evaluation method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N=50)

contents category		relative frequency	
do	performance assessment	don't exist	7
		impossible goal achieve	2
		difficult standard prepare	2
		reliability insufficiency	2
	attitude, homework	don't exist	1
		difficult feedback	2
	monitor assessment	don't exist	3
		difficult standard prepare	2
		difficult marking	4
	various method application	don't exist	6(*1)
		difficult standard prepare	4
	essay assessment		1
description type assessment		1	
don't	student understanding application	difficult standard prepare	1
	don't	reliability insufficiency	1
		difficult standard prepare	2
don't know	difficult marking		9

따라서 창의·인성 관련 자료를 제공할 때 체점 기준안을 함께 제공하여 교사들이 평가 시 평가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의·인성 수업이 일회성 또는 일반 수업의 보조 역할 정도가 아닌 하나의 교육과정 내의 수업 차시 분으로 구성하여 수업의 목표, 과정, 평가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IV. 결론 및 제언

창의·인성교육 동남권 거점센터는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지역 교사들의 창의·인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과수업에서의 창의·인성교육 실천능력을 신장하며, 학교 현장의 창의·인성교육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창의·인성교육의 확산을 목적으로 약 10개월 간(2013. 06.- 2014. 04) 운영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인성교육 동남권 거점센터의 교원연수와 워크숍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식을 통해 창의·인성교육의 현장 실천에 대하여 질적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계연수와 워크숍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질적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실천 방법은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 및 학생 참여활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교사와 학생의 소통이 강화된 교육, 수업·생활지도·상담 등 모든 교육활동에 포함하는 것,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적용, 창의·인성교육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단원에의 적용, 시판되는 교재의 활용, 학교 행사나 진로 활동과 연계하여 특별한 때에 실시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창의·인성교육을 얼마나 자주 학교 수업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가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없다’ 부터 ‘매 시간마다 실천한다’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으며, 응답에 참여한 다수의 교사들이 거의 매 시간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셋째,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에 대해서 교사들 중 일부는 ‘충분한 교육 환경’이라고 반응한 반면, 일부는 ‘환경이 열악하거나, 전혀 환경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전체적인 반응 빈도를 보면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이 충분하다는 반응보다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훨씬 많았다.

넷째,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에서 주기적으로 창의·인성 자료를 활용하거나, 수업의 형태에 따라 재구성하여 수업에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료의 대부분은 창의재단의 ‘크레존’과 ‘누리집’에서 제공받고 있었다.

다섯째,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생평가에 대해서 교사들의 일부는 수행평가, 태도 및 과제물, 관찰 평가와 같은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일부는 평가의 한계와 평가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등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위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창의·인성교육의 확산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이외에도 생활지도나 상담활동 등 모든 교육활동에 창의·인성교육이 접목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둘째, 창의·인성교육의 확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가 주기적, 단계적(기초, 심화)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창의·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교사 개인의 역량 및 태도 신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넷째, 교사들이 창의·인성 수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활용 가능한 수준 높은 자료들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현장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창의·인성교육의 현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창의·인성 관련 자료 제공시 채점 기준안의 제공, 교육과정 내에서 창의·인성 수업의 목표, 과정, 평가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의 개발에 대한 연구 및 보급이 필요하다.

References

- Kang, Beodeul·Park, Jong-un(2014). A Study on Student', Parents', and Teachers' Change of Perception on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through Operation of Creativity and Character Model School.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vol.26, No.2, pp257-269.
- Lave, W. & Wenger, E.(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New York, NY: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cality-Based Science Education in Sociocultural Approach: 'Scientific Exploration in Culture' in the Context of Korea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2009). The Manual of 2009 Revised Curricula.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2010). Basic plan for creativity·character education(2010. 1).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0).100 Education Curriculum Excellent School Plan. Curriculum Department Policy Data.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and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2013). Creativity and character model schools workshop for school administrators(2013. 10. 18).
- Moon, Yong-Lin(2010). Now is creativity·character education Science & Creativity, 2010. February. 6~9.
- Park, Choon-Sung.(2010). The creative character

- education evolved in school,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vol.10, No.2. 61~72.
- Park, Choon-Sung.(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nd Creativity Character Education, Education Culture Research, vol.17, No.1, 79~97.
- Report on Operation in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Southeast part Main Center (2013),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 pp. 122~132.
- Sungmin Im*, Sung-Jae Pak, Daegu University, South Korea. *ismphs@daegu.ac.kr
- The Asia-Pacific Education Researcher 21:1 (2012), 63~70
- Vygotsky, L. S.(1978). Mind in socie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 논문접수일 : 2014년 09월 11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4년 10월 01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06일